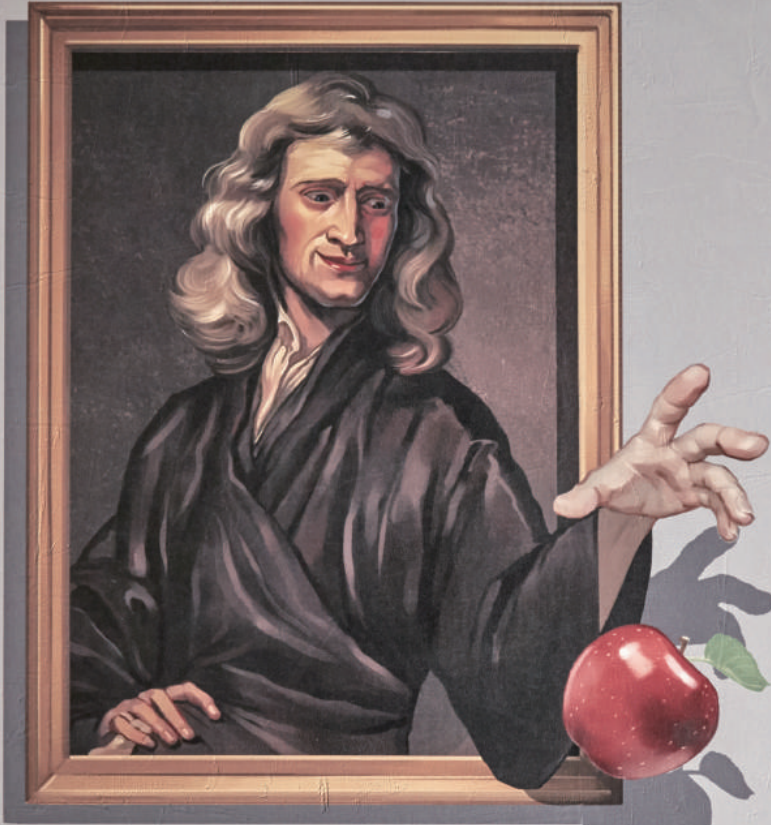


과학^지팡이

VOL. 6

ISSN 2289-036X



SPECIAL THEME

걸작의 탄생 어디서 시작될까...
과학의 예술의 경계 허물기?

SCIENCE MUSEUM THEME

ART & SCIENCE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
National Science Museum



1

이정원 선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이 예술을 만날 때

장면 하나. 뇌과학자, 생물학자, 정신분석학자,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미술 작가들이 둘러 앉았다. 2014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기획한 '프로젝트 대전: 더 브레인' 전시의 학술 프로그램, 이름하여 '과학 예술 키퍼런스'.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자점이 어디쯤인지 서로에 대해서 탐색하기 위해 1박 2일 동안 강연과 패널 토론, 분과 토론, 종합 토론이 이어진 자리였다.

'과학 예술 키퍼런스' 첫날 패널 토론 시간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무의식'이었다. 무의식에서 나온 예술적 영감에 대한 과학적 해석과 인문학적 해석을 맞대어 보는 자리를 예상했지만, 실상

무의식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프로이트 이후로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인 의미를 벗어나 인문학이나 예술 평론에서 흔히 통용되는 개념이 되었는데, 사실상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진 거다.

장면 둘. '프로젝트 대전: 더 브레인' 기획 단계에서 대전시립미술관의 전시 큐레이터들과 작가와 함께 모인 자리. 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시 기획에서 맥락을 만들고자 마련된 회의였다.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참 질문과 응답을 주고 받다가 한 시간이 지나서야 문득 뭔가 잘못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미술관의 큐레이터들은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세포'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다시 "뉴런이라는 것은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하나의 세포입니다."

고등학교 이후 생물학 책을 볼 일이 없는 문과생에게 세포라는 개념은 동그란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로 손을 뻗어 맞잡고 있는 모양의 뉴런을 세포로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장면 셋. 해발 1400 미터의 소백산천문대에서 2박 3일 일정이 있었다. 이태이론물리센터에서 주관하여 물리학자, 천문학자, 만화 웹툰 작가들, 만화평론가, 가수, 일러스트 작가, 영화 감독이 모여 별과 우주와 입자와 노래와 영화를 논하는 자리였다. 돌아가며 강연하고 토론하고 애니메이션 보고 영화 감상하고 밤새 토론하고 노래 부르고 별 보고 들어와서 또 토론하고.

둘째날 소백산 백두대간 코스로 잠시 트래킹을 다녀오는 길에 웹툰 작가와 말동무가 되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화제가 넘어가고 한참을 신나게 힙합 얘기를 했다. 그러다가 문득 웹툰 작가가 내뱉은 한 마디. "과학자랑 힙합 얘기 하나씩 신기하네요."

과학과 예술은 마치 좌뇌와 우뇌처럼 전혀 다른 별종으로 인식되고 한다. 하지만 좌뇌와 우뇌에 대해서 우선 말해줄 것은 그러한 구분이 허상이며 잘못된 상식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좌뇌만을 동작시켜 계산하지 않을 뿐더러, 예술적인 영감이 우뇌에만 내려앉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이라는 구분도 근거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이분법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는 치명적이다. 스스로를 둘 중 하나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다른 편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끊기고 만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서 특히 그렇다. 문과와 이과 구분은 폐기되어 마땅하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도모할 때 일찌기 생각해도 두 가지 가능한 방식이 떠오른다. 과학자들이 예술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예술가들이 과학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예술가와 과학자가 만나서 작업을 같이 한다면 그 결과물은 과학적인 연구이거나 예술 작품일 것이다. 예

술심리학, 신경미학과 같은 학문 분야 연구가 전자이고 인사이드 아웃, 인터스텔라, 마션 같은 영화들은 후자다. 하지만 과학과 예술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식이어서는 소통이 어렵다. 도구적인 융합은 서로를 여전히 반대편에 놓도록 만든다.

과학이 예술과 통하려면 우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술에서 말하는 무의식과 과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야 하고, 뇌 속에서 전기 신호를 주고 받는 뉴런이 하나의 세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공유해야 하며, 과학자도 예술을 좋아하고 힙합도 즐겨듣는다는 점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나치게 사소하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하나씩 꺼내놓고 대화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과학과 예술이 건너편이 아니라 한 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논리와 감성을 조화롭게 활용할 줄 알며, 과학과 예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과학과 예술은 오랫동안 다른 세계로 인식되어 왔지만 우리는 어느 한 세계에만 속하지 않는다. 이상과 감성은 협력한다. 우리는 동시에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험은 두 세계의 대화인 셈이다.

1 나폴라 퀴벤스타인, 텔레마쿠스 프로젝트 II, 혼합매체, 가변설치, 2013 © 대전시립미술관
2 과학과 문화예술 소통 워크숍



2